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광주의 옛이름은 무진주(武珍州)였다. 광주의 진산(鎭山)은 무등산, 무등산은 본디 서석산(瑞石山)으로 광주에는 서석동, 서석 초등학교 등 온갖 명칭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서석'이다. 광주에는 수많은 도로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리는 바로 충장로와 금남로이다. 근래에는 지역의 주소를 도로명으로 표기하기 시작하면서 광주에는 제봉로(고경명)·죽봉로(김태원) 등 광주지역 출신으로 혁혁한 학문적 업적과 의혼을 드날린 명인들의 호를 딴 많은 거리가 명칭을 얻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도로는 역시 충장로와 금남로이다.

충장로는 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은 무등산의 장군 김덕령(1567-1596)의 무공(武功)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금남로는 금남군(鎭南君)이라는 군봉을 받은 정충신 장군의 공적을 현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에 의병장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몸을 바쳤건만 억울한 모함과 참소로 옥사한 김덕령을 추모하는 거리이다. 인조 때 이괄 난을 평정하고 정묘호란에 큰 무공을 세운 정충신은 시호는 충무(忠武)이지만 시호보다는 군봉

충장로와 금남로

의 명칭으로 도로명을 지어, 이제는 광주의 금남로만이 아니라 5·18의 상징적 거리이자 민주항쟁의 국가적 거리로 널리 알려진 곳이 되었다. 두 거리는 바로 의혼과 의기가 살아 숨쉬는 거리로 국난에 몸을 바쳐 나라를 건져내는 호남정신을 잊을 수 없게 해주는 거리임이 분명하다.

충장로는 세월이 가면서 옛날의 충장로와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시청과 도청이 딴 곳으로 옮겨가면서, 거리가 한산해지고 상권이 약해져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졌다. 김덕령 장군의 그 뛰어난 용맹과 기개로 왜적을 퇴치하던 충혼을 기리기에는 기개가 약해지는 거리로 변했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다. 1950년대 말 내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호남의 중심적 상가이자 삶의 화려한 모습의 거리였건만 어찌하여 세월은 이 멋진 거리를 이렇게 스산한 거리로 만들었던 말인가. 당국은 호남의 의혼과 의기를 더 북돋는 의미에서라도 도심을 활성화하는 정책에 무엇인가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해본다.

금남로의 명칭을 선사한 금남군 정충신장군, 조선의 대표적 실학자 정약응은 광주를 지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정충신이라고 했다. "...신분이야 구종직처럼 미천했으니 / 재주는 이순신과 견주었네 / ...웅장한 무등의 진산에서 / 기특한 사나이 태어났네" 광주하면 떠오르는 정충신, 다산은 그를 흠모해서 천추에 빛나는 시를 읊었다. 신분과 계급이 인간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에서, 참으로 미천한 신분의 정충신은 뛰어난 지략과 충성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일한 보람으로 1등 공신에 오르고 높은 벼슬을 지내며 군봉과 시호까지

받았으니, 인간의 능력으로 인물을 평가하던 다산은 그를 추앙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시절, 일본은 몰려가라고 외치던 의로운 학생들의 합성이 서려 있는 금남로, 4·19의 반독재 항거 때 대통령을 몰려가라고 외치던 학생들의 합성, 6·3 한일협정반대운동과 6·10 항쟁 때 학생들이 가득 매워 외치던 합성, 5·18 민주항쟁의 피가 흐르고 시신이 즐비하던 금남로, 금남로 정신은 바로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던 뜨거운 저항정신으로 승화된 곳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산의 이야기를 되새겨야 한다. 신분이야 낮았지만 재주는 이순신과 견주었기에 시호도 이순신과 똑같은 충무공인데, 온 나라에서 이순신만이 충무공이고 정충신이 충무공임을 아는 사람이 적으니 이 일을 또 어찌란 말인가. 진무공신 1등으로 금남군의 군봉까지 받은 혁혁한 장군이요 애국자 정충신, 우리가 낮은 이순신의 충무공만큼 정충신의 충무공 또한 온 세상에서 기억해주는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바로 우리 광주시민들이 해야 할 오늘의 과제이다.

정충신은 무인이었으나 영의정을 지낸 백사 이항복의 제자로 경사(經筵)에 밝은 문인으로도 큰 명성을 얻었다. 그의 호가 만운(晩雲)이어서 지금도 그의 문집인 '만운집'이 전해지고 있는데 시인으로서 이름을 얻었듯이 훌륭한 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무공에 대한 찬양과 함께 그의 시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를 현양하여 금남로와 함께 충무공이 정충신임을 더 크게 알려주도록 노력하자.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10시는 내 삶의 정초시간이다. 바둑을 두다가 마지막 착점을 하거나 읽던 책을 접는 시간이다. 누구를 만나면 마지막 술잔을 드는 때이기도 하다. 군대처럼 서둘러 동작 그만, 하루를 마무리한다.

30여 분이 지나면 자리를 펴고 나를 놓는다. 1의 몸을 -로 바꾼다. 마치 초병처럼 깨끗했던 몸도 마음도 -처럼 아늑아늑해 들어간다.

그리고 45분, 익숙한 어둠 속으로 내 몸을 감춘다. 나는 없다. 어둠에 나를 내어 준다. 내가 없으므로써 가장 편안한 내가 되고, 나를 지움으로써 나는 비로소 또 다른 자유로 태어난다. 나를 놓히고 내려놓는 일이 이리 간단하고 쉽다니, 애먼글쎄 산 오늘을 되돌아본다. 두 눈을 여러마리 감는다. 그러면 비로소 보인다. 오늘 읽었던 책 줄거리와 바둑의 맥점, 술자리에서 했던 친구의 진의, 그렇게 내 영혼의 무늬에 중량을 더하고,

밤, 10시 45분

예쁜 결 하나 새긴다.

그렇게 복기하고 홀로 2차를 마시며 바지런히 오늘을 되고한다. 천정의 자음과 모음을 선택해서 글따구니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롭게 숨을 불어넣는다. 글은 내가 쓰지만, 오늘 하루가 쓰고, 지금까지 쌓인 나날들이 쓴다. 또 그 글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

낮은 썰물을 보내고 새 밀물을 맞이한다. 이성을 비우고 감성을 채운다. 오늘 거둔 많은 낱알을 고운 체에 걸러 알곡 낱알을 마음 공간에 채운다.

봄밤, 꽃은 바빠 벌굴거나 너르든는 때이고, 여름은 먼 곳에 소쩍새 울음소리가 파고드는 시간이다. 가을이 시간은 풀벌레들이 그약스럽게 떠드는 즈음이다. 그들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인다. 도시 아이들을 수는 없지만, 기꺼이 그들 틈에 합석하여 잠시 수다를 떠난다. 즐겁다고, 오늘 약 쟁겨 먹었느냐고, 사랑한다고 ...

그렇게 미음을 덜어내고 사랑을 충전하는 45분, 뼈조차 비어서 시린 시간이라서 영혼까지 가벼워진다. 수필이 어느 글과 다르다면 그것은 통념을 흔들거나, 옛나가 새로움을 찾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늘 운동회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했다면, 수필가는 꼴찌하고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반전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설가는 청춘 백군의 경쟁을 통해 운동회 전체를 보여주고, 시인은 특정 선수, 한 사람의 단면을 통해 운동회 맛깔을 낸다면, 수필가는 옛나가서 운동장도 선수도 아닌 그 무엇을 통해, 그날 그 순간의 짜릿한 감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넘어졌지만 누군가를 웃겼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꼴찌지만 결코 꼴찌가 아니라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사유가 있어야 한다. 김치찌개가 맛있는 이유가 좋은 재료 덕만이 아닌 농부의 정성, 식당 아주머니의 손맛, 나아가 그날 날씨 하나까지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누구나 보면서도 보지 못한 부분을 꼭 잡아내는 안목, 독특하고 특이해서가 아닌 누구나 알면서 깨닫지 못한 부분을 이리저리 주는 글, 사유의 힘이 있어야 한다.

수필 쓰는 일은 그해 추수기보다 매일매일 이삭을 줍는 일이다. 구석구석 이삭을 줍듯 하루를 살피고, 아픈 부분을 찾아내서 약을 발라주는 세심함과 따뜻한이 필요한 일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나는 잠이 든다. 내 글들은 내가 지는 동안 보골보골 숙성되어 아침을 맞이하면 잘 익어간다.

구슬을 꿰는 밤 10시 45분, 나는 잠들고 내 수필은 지금 깨어나는 중이다.

기고

OECD 1위 자살률, 떨어지지 않는 이유

자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잊고 산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빛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먼저 자연계를 컨트롤하는 실체이자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희망의 상징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주의를 추구했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평등사상, 휴머니즘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 인간은 자연 위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연의 삶이었다. 자의견 타의견, 천수를 못하고 맞는 죽음이란 비참한 것이라 여겼다. 이런 그리스인들의 사상, 즉 헬레니즘 문화의 본질은 그리스 신화시대 초기, 문화 영웅들(Culture heroes)의 스승으로 알려진 키론과 그의 가르침(Precepts of Chiron)에서 찾을 수 있다. 거기는 키론이 아킬레우스에게 인류의 원시적 방식(Primal ways of mankind), 신들(Gods)과 자연(Nature)을 가르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의 육체적 삶의 영위는 자연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정신 세계의 충족과 마음이 건강한 인간의 육성을 위해서는 예술과 교육이 요구된다. 예술적 소양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천부적 재능이다. 그리스인들은 각자의 예술 소통을 위해 가장 자연에 가까운 이상적인 예술 장르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그리스 고전주의 예술이었다.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 법, 우리 헌법 제10조와 22조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천부적, 즉 하늘로부터 받은 기본권으로 보장했다.

자연과 인체공학을 보면, 예술과 정신세계의 소통 과정에서 자연을 빼면 예술의 인식이 불가능해진다. 빛이 있어야 그림을 볼 수 있고, 공기 진동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 말이다. 예술 소양을 쌓는 일은 유아기부터 해야 한다. 뇌가 백지상태일 때 예술적 이미지를 켜켜이 쌓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릴 때 EQ를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성장 후, 어려운 상황과 맞닥뜨릴 때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비극에서 아킬레우스는 "나는 불행할 때는 슬픔을, 성공할 때는 기쁨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소이다"라고 말했다는, 일맥상통한 대목이다.

나는 6·25 전쟁 직후 세대로 우리가 배고프던 보릿고개와 지금 풍요가 넘치는 시대를 다 겪고 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기대는 헛된 꿈이었다. 자살은 가장 불행한 일인데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래 20년 내리 OECD 1위다. 그동안 우리는 양적 성장에만 몰두했고, 정신 세계는 돌아보지 못했다. 그 사이 우리 정신 세계는 자신의 길을 지켜내지 못하고 물질 문명에 압도돼 버렸다. 길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 결과가 자살로 나타낸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고 하고, 기구를 설치해 자살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못된다. 엄청 몰려드는 자살 유발 요인 차단을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예술교육을 대폭 늘리고 일정 부분 고전주의 방식의 삶이 필요하다.

社說

‘먹통’ 행정망 사흘만에 복구, 디지털 정부 맞나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먹통’된지 사흘 만에 복구됐지만 그동안 쌓아온 디지털 정부의 명성이 오점을 남기게 됐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울 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포털인 ‘정부 24’가 지난 17일부터 무용지물이 되면서 인감증명 등 민원 증명서를 떼지 못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정부 24’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복구가 이뤄져 민원이 정상 처리됐지만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새울’은 사흘만에 복구를 마쳤다. 정부는 새울의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을 셋다운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월요일부터는 정상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초유의 이번 사태는 세계 최고 디지털 정부를 표방해 온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한국은 2019년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디지털 정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행정 전

산망 장애로 명성이 퇴색하게 됐다. 민원 현장에서 확정일자 등과 같이 즉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기(手記)로 접수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다.

사고후 정부의 대처도 미온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휴일이 끼어 있다지만 사고 원인 규명도 사흘만에 발표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민간 기업에서 전산망 장애가 일어났더라도 과연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디지털 정부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이렇듯 전산망이 먹통 될 경우 모든 서비스가 울스톱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의 외형 성장에만 치중하 나머지 민원 행정이 구현되는 현장에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화순, 글로벌 백신·면역 치료 메카 발돋움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백신과 면역치료, 감염 예방 체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감, 폐렴 등 기존의 감염병은 우리 삶과 공존할 수밖에 없고, 지구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감염원들의 등장도 예견되는 상황이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순군이 글로벌 백신·면역 치료 메카로 떠오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찍이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한 전남도와 화순군은 지난 2009년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포럼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 최근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엊그제 미국 모더나,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센터 등 전 세계 굴지의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3 화순국제 백신·면역치료 포럼’은 ‘미래 백신과 면역치료를 위한 신기술’이라는 주제 아래 함양치료를 위한 면역 요법 신기술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져 화제를 모았다.

무엇보다 포럼 개막식날 첨단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인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가면서 바이오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관심을 모은다. 센터는 암, 희귀병 등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기관·기업이 협업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화순이 세계보건기구 글로벌바이오캠퍼스로 선정돼 매년 1000여명의 바이오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며 면역 세포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등 백신·면역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도 갖춰지고 있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지금까지 성취를 기반으로 국가 첨단 의료복합 단지화 및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도 적극 나서 화순군이 첨단의료·바이오 신약 산업의 진정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충청남도 태안 마도해역은 고려, 조선 시대에 해난사고가 집중 발생했던 장소다. 2008년 마도 1호선이 발견된 이래 2014년까지 모두 네 척의 침몰선이 잇따라 발굴됐다. 마도 1호선은 나주와 영암, 해남 일대에서 곡물과 도자기를 싣고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가던 중 침몰했다. 적재 물품은 벼·쌀·콩·조·메밀 등 곡물을 비롯해 고려청자 321점 등 900여 점에 달했다. 마도 1호선은 여느 침몰선과 달리 수화물표인 목간(木簡) 18점이 출수돼 화제를 모았다. 예컨대 “별장 권극영 맥에 20 두를 넣은 메주를 올림. 솥수 성을 가진 장님이

서 발견한 석탄을 분석한 결과 착화 온도는 섭씨 250도로 무연탄(450~550도)에 비해 착화가 용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발견된 숯불용도 석탄에 불을 붙이는 용도로 해석됐다.

공주대학교 문경호 교수는 최근 펴낸 ‘바다에서 발굴한 고려사’라는 책에서 마도 1호선 석탄이 화순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화순에서 채취돼 장흥 회진현에서 마도 1호선에 적재됐다고 봤다. 조선시대(1530년)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화순 현 산천조에 등장하는

화순의 검은 흙

“흑토제(黑土岾)는 현의 동쪽 25리에 있으며 검은 흙(黑土)이 생산된다”는 구절을 주목한 것이다. ‘검은 흙’은 석탄을 지칭하는 말이다.

화순탄광이 일제 강점기를 기준으로 채광 100여 년을 헤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마도 1호선으로 미뤄 역사는 더 깊을 수 있다. 비록 지난 6월 화순탄광이 폐광 조치 됐지만 화순 검은 흙의 역사와 광부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재조명 사업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정창재**  
도서출판 사랑채 대표

그리스 비극의 대사다. “햇빛을 보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며, 지하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기를 기원하는 자는 미친 자예요. 고상한 죽음보다 비참한 삶이 더 나아요.”

이 대목은 그리스 3대 비극작가 에우피데스의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에서 주인공이 한 말이다. 이 정황을 잠깐 살펴보면, 파리스가 에우로타스 강둑에서 헬레네를 트로이로 빼앗아 갔었다. 구혼자들의 맹세대로 헬레네를 데려오기 위해 그리스 부족국가 연합군이 모여 들었는데, 경향 각지에서 일천 척의 함선이 아울리스 항에 집결했다. 그런데 날씨 탓에 출항을 못한다. 예언자 칼카스가 총사령관 아가멤논의 큰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신약을 내렸다. 아가멤논은 여러 고민 끝에 준족(俊罔)인 아킬레우스와 결혼시킨다는 거짓 서찰을 보내 부인과 큰딸을 데려온다. 진상을 알게 된 이피게네이아는 트로이 전쟁과 무관한 자신이 죽게 되자 아버지께 탄원을 한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5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80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